

# 해남군 쇼핑몰 '해남미소' 매출 '역대 최고'

지난해 절임배추 67억·농수산물 가공식품 47억 등 241억원  
특산물 직거래·혁신적인 마케팅·고객맞춤 서비스 등 주요

해남군은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2024년 역대 최고 매출액인 241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해남미소'는 해남군의 농수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남지역 농어민들과의 협력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역대 최대 매출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 위상에 걸맞게 김장철 필수인 절임배추 매출이 전년보다 11억원 상승한 67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쌀과 잡곡이 56억원, 고구마가 30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해남 특산품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다

양한 농수산물 가공식품도 4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같은 매출 신장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품질 친환경 농수특산물을 입점, 판매하는 것은 물론 자체 기획전, 직거래 행사 등도 다양하게 진행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해 온 결과라는 평가이다.  
해남미소에서는 지난해 명절 기획전 등 다양한 자체 기획전을 38회 진행해 1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진행되는 그린해피데이 행사에서는 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매월 1·2·3일은 쌀 사는 날'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미소정(精)미소는 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대형마트를



절임배추

비롯해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대량주문 및 제철 농수특산물 유통망 확장으로 전체 매출의 45%가 흡소평과 고정 거래처 등으로 판매되면서 10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통한 판



고구마

로 확대도 큰 성과를 나타냈다.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연계하여 88회의 프로모션을 진행, 총 매출액 76억원을 기록했다.  
해남미소는 2007년 개설 이후 2011년부터 해남군에서 직영하고 있다.



한과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미소의 성공은 해남 농산품의 가치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해남미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군수협, 위판액 2000억원 돌파...창립 이래 '최고'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확대  
스마트 어업·복지 증진 등 박차

신안군수협이 지난해 위판고가 2294억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신안군수협은 올해 수산물 생산 증가를 위한 품질 향상 등 지원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새로운 판로 확보와 해외 수출 개척 등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술 혁신과 스마트 어업 도입, 유통·마케팅 강화, 어촌 복지 증진,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 등도 함께 전개한다.  
김길동 신안군수협조합장은 "어획량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합원과 어업인들, 중도매인과 수협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며 "조합원과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환원 사업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 지도읍 송도위판장.

## 목포사랑상품권 3월까지 10% 할인...40만원 한도



음식점·학원 등 8000여 가맹점

목포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목포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 할인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다. 시는 21억 여원을 투입해 총 200억원(지류형 10억원·카드형 19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매한도는 40만원(지류형 10만원·카드형 30만원)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

원 등 8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올해 1월부터 54개소 금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 금융기관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다. 목포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올해 상반기에 10%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며 "서민들의 가계와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보선 기자 jbs@kwangju.co.kr

## 영암군, 행안부 특별교부세 52억원 확보

영암군이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2억원을 확보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영암읍 월출산 달빛 위케이션 센터 조성 9억원과 신북 중심소재지 연결도로 개설 3억원, 시종면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9억원, 군서 구림교 개수공사 및 평리소하천 정비사업 각 4억원으로 구성된 29억원의 하반기 특교세를 확정·교부받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덕진 영보정 유리온실 실내정원 조성 8억원과 삼호읍 AI기반 지능형 CCTV설치 사업 및 재난대응 거점 통합창고 건

립비 각 4억원 등 23억원을 확보했다.  
유례없는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올해 각 지자체 살림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암군이 지난해 확보한 52억원의 특교세는 지역 미래사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중 영암군 기획예산실장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주요현안 및 미래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해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고금면 덕암산에 조성될 산림치유 생태공원 조감도.

## 완도군, 고금 덕암산에 '산림치유 생태공원' 조성

유아 생태 놀이원·오두막 등

완도군이 환경부 '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고금 덕암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해 힐링 치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고금 덕암산 일대에 숲속 무대, 유아 생태 놀이

원, 오색 초하원, 숲속 오두막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새벽, 저녁에도 산책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군은 조성면적 9900㎡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